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미래를 묻다

광주문화재단, ESG 포럼 개최
예술, 단절의 시대 연결의 매개 주목
상생 주제로 후원문화 방향 등 논의
내부 연대·공동체 협력 방안 등 제시

문화예술은 종종 사회와 단절된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도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가 되기도 한다. 갈등과 소통 단절이 깊어진 지금 문화예술은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부드럽고 유용한 매개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지역소멸의 위협 앞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기업·공공·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답을 찾는 자리가 열렸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문화예술의 내일을 고민하는 ESG 포럼'을 개최했다. '상생'을 큰 주제로 '후원문화와 예술경험'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고, 변화하는 후원문화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세션은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협력'이 왜 필요하며 어떤 조건에서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짚는 흐름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에 나선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협력의 필요와 조건'을 주제로 파트너십이 단순한 후원이나 일회성 연계로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조직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서로 다른 주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전략적 관계가 바로 파트너십"이라며 "목적의 명료함과 가치의 정합성, 지속적인 학습과 현신이 협력의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방 대표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이 '선'에 기대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실제적인 가치 창출과 성과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협력은 쉽게 소진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과 ESG를 연결하는 논의 역시 '좋은 일'의 차원을 넘어 조직과 지역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김민지 위원



방대옥 대표



해민영 팀장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어 김민지 광주문화재단 ESG경영위원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한 민관협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위원은 문화예술이 가진 고유한 힘으로 '회복력과 연결성'을 꼽으며 문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지역 불균형, 세대 갈등, 고독과 정신건강 문제 등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문화예술 정책의 효과가 높은 영역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자원의 협력 사례도 소개됐다. SK E&S와 언더독스, 사회연대은행이 함께한 'Local Rise 군산'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과 문화기획, 공간 재생을 결합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례로 꼽혔다. 군산의 유헤 공간을 기반으로 창업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제주에서는 아라리오뮤지엄이 폐극장과 숙박시설 등을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키며 원도심 재생을 이끌고 있다.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고, 제주 해녀의 삶을 전시 콘텐츠로 담아내며 '지속가능성'을 공간과 이야기로 구현했다.

그는 최근 국가 재정 기조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계가 재정 축소와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위원은 "이렇듯 문화예술계 내부의 연대와 함께 민관이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며 "ESG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는 해민영 MYSC CAO가 맡아 '로컬에서 가능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해 CAO는 사회혁신 컨설팅과 임팩트 투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사회 문제와 만나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트래쉬버스터즈'는 각종 페스티벌과의 협업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혔고, '트레드앤그루브'는 페다이어를 신발 밑창에 활용해 '환경 보호'와 '하나뿐인 패션'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 같은 문화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 CAO는 "로컬에서의 협력은 규모보다 맥락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엮어내는 문화적 기획이 지속가능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

‘흥’으로 여는 새해

국립남도국악원, 27일 진도 진악당서 ‘국악의 향연’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장구춤'의 한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한 해의 끝자락, 묵은 시간을 털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무대가 열린다. 송년회 대신 국악 한 판으로 마음을 다독이고 흥과 기운을 북돋아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의 올해 마지막 공연인 이번 무대는 가·무·악을 아우르는 종합 국악 공연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무대는 기악합주 '남도시나위'로 문을 연다. 각기 다른 악기가 즉흥적으로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시나위의 흐름은 남도 음악 특유의 자유로움과 생동감을 전한다. 이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이 펼쳐진다. 다친 제비를 정성껏 돌본 흥보의 선행과,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서는 제비의 여정을 해학과 감동으로 풀어낸다.

무용과 민요 무대도 이어진다. '강선영류 태평

무'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절제된 몸짓으로 무대를 채우고, 남도민요 '새타령'은 경쾌한 가락으로 공연장에 밝은 기운을 더한다.

후반부에는 장단의 매력을 한껏 살린 '장구춤'과 사물놀이 '판굿'이 무대를 이끈다. 삶의 애환과 흥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남도 국악의 에너지가 연말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운영된 '청년교육단원'들의 연주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실무 교육과 무대 경험을 쌓아온 청년 단원들의 참여는 공연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며,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이번 공연은 한 해 동안 함께 해 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를 국악의 흥으로 맞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연말의 여운과 새 출발의 기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

‘흙’을 선택한 사람들

현직 기자 한현목 씨, 기획기사 엮은 '귀농, 희망을 심다...'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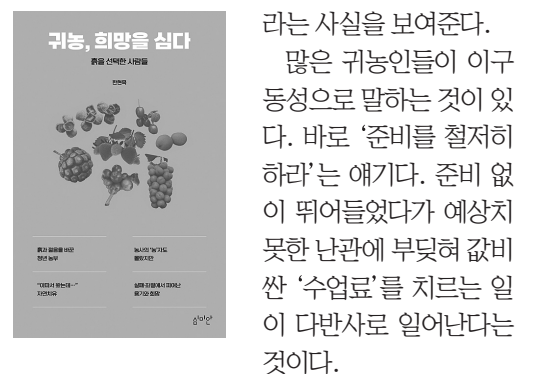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귀농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삶의 터전을 옮겨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귀농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따른다.

귀농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귀농, 희망을 심다-흙을 선택한 사람들 (심미안)'이 출간됐다.

세계일보 기자로 활동 중인 한현목 씨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신문에 연재한 기획기사 '귀농 귀촌'을 묶은 것. 책에는 35명의 인터뷰가 8가지 주제에 담겼다.

한 씨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귀농인들의 삶을 취재해 예비 귀농인들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귀농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영암 유기농 호두농장' 대표 임창욱 씨를 비롯해 '지애의 불 향기' 대표 함지에 씨, '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 대표 차상화 씨 등 귀농인들의 이야기는 귀농은 결코 낭만이 아닌 생생한 땀의 현장이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많은 귀농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다.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씨는 "귀농인들에게 모두 성공적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농업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며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 비로소 귀농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 출신 한 기자는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94년 전남일보에 입사했으며 2012년 세계일보로 옮겨 사회2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석홍 전 국회의원 자서전 발간

‘삶은 선택의 과정이다’...학창시절·공직 입문 등 삶의 여정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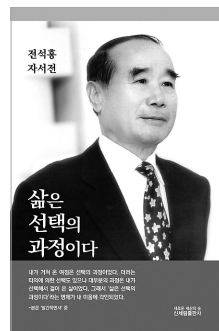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전석홍 전 국회의원(제15대)이 자서전 '삶은 선택의 과정이다' (신세림출판사)를 펴냈다.

이번 책을 펴내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내가 거쳐 온 여정은 선택의 과정이었다. 더러는 타의에 의한 선택도 있으나 대부분의 과정은 내가 선택해서 걸어 온 삶이었다. 그래서 '삶은 선택의 과정이다'라는 명제가 내 마음에 각인되었다"고 전했다. 자서전은 선택적 기록보다 연대순으로 기록돼 있

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가를 시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삶의 출발점에서 나를 키워준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내가 커오면서 보고 느낀 대로 써 두었다"며 이번 자서전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쓴 것인지 밝히고 있다.

영암에서 태어난 전 전 지사는 초등학교를 다닌 뒤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했다.

그는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화시대에 공



직자가 하나의 국력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동시대의 동행인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시절의 체험은 온몸에 스며 생생하다"며 "공직의 마지막엔 정치권에 입문하였으며 꿈이었던 시를 쓰고 싶어 정계를 은퇴하고 시 쓰기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 생각하고 왕인박 사회장학회 회장을 맡아 조직기반을 조성하고 협회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